

바닥 찍고 반등 시작한 평택 부동산 시장



e편한세상 비전센터포레 조감도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 빠졌던 경기 평택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집값을 억눌러 온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면서 반등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평택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2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하락 없이 꾸준히 오른 수치다. 게다가 6월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나온 시기로 6·17 대책에서 평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최근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용죽지구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용죽지구가 위치한 용이동의 6월 현재 3.3㎡당 평균 매매가는 944만원이다. 지난해 1월 841만원과 비교해 약 1년 반 만에 12%가량 상승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신축 단지의 오름세가 눈에 띈다. 입주 5년 이내 신축 단지의 경우 같은 기간 893만원에서 1천45만원으로 17%가 올랐다. 입주 10년 초과 단지의 상승률이 0.7%에 그친 것과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평택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에는 광역교통망이 개선되고 평택 지역산업 활성화 등의 호재가 주요한 동력으로 꼽힌다. 2016년 말 SRT 개통으로 서울 강남 및 전국 전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강화됐으며, 주한미군 사령부·유엔군 사령부가 이전해 4만 3천명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택 미군기지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 고덕국제신도시에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향후 10년간 133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추가라인 신설 공장도 평택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망 등 각종 호재가 더해지면서 아파트 가격도 바닥 다지기를 끝내고 상승 단계로 진입하는 모양새”라며 “정부 규제로 잠시 주춤할 수도 있지만 일자리가 풍부해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뤄지는 지역인만큼 앞으로 꾸준한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8월부터 평택시 용이동 641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비전센터포레’의 분양에 나섰다. 용죽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로 지하1층~지상 27층, 6개동, 총 583세대 규모다. 주택형은 전 세대가 수요선호도 높은 84㎡ 이하 중소형 평면으로만 구성된다.

금년 내 오픈 예정인 스타필드 안성과 2km 내에 위치한 단지인 만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앞뒤로 배다리생태공원과 용죽공원 등 공원을 품은 단지로 주거 쾌적성이 높으며, 현충초등학교와 용이중학교가 도보권에 있다. 단지 인근의 안성IC를 통해 수도권 주요 도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 도시로의 이동도 편리하고 2024년 개통 예정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등 교통 호재도 지녔다. ●